

코딩부터 CAD까지... '미래형 인재' 필수역량 겨루다

1900명 참여...164명 수상
ITQ·GTQ 등 8개 종목 평가
코로나 확산 방지...개별 시상

KPC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이하 KPC)가 전 국민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제15회 i-TOP(IT on Productivity) 경진대회 수상자가 결정됐다. 올해는 총 164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으며 일부 상에 한해 개별 시상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i-TOP 경진대회는 KPC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 국민의 ICT 경쟁력 강화와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KPC 창립 5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전자신문사, 한국정보처리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KPC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i-TOP 경진대회는 미래형 인재들의 필수 역량인 SW코딩부터 개발·제조 관련 설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3차원 CAD 활용능력까지 다양한 분야의 ICT 역량을 겨루는 종합 경진대회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군인을 비롯해 실버,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근성이 높기 위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시합장을 운영한다.

i-TOP 경진대회는 연 평균 6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ICT 경

진대회다. 현재까지 참여 인원이 10만 명을 상회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을 대폭 축소 운영, 올해 i-TOP 경진대회는 전국 29개 고사장소에서 1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격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대회 평가 종목은 △정보기술활용(ITQ) △그래픽기술활용(GTQ) △그래픽기술일러스트(GTQi) △기업정보관리(ERP) △서비스경영능력(SMAT) △인터넷윤리(IEQ) △SW코딩(SWC) △CAD실무능력(CAT) 등 총 8개 종목이다. 올해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로 대표되는 정보기술 분야 참가자가 가장 많았고 코딩, 그래픽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서비스 경영 분야 또한 취업 중요 역량으로 꼽히며 높아진 관심을 체감했다. 계층별로는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 참여도가 높았던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석력과 완성도,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보와 역량이 우수한 개인과 지도자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6명, 국방부 장관상 1명, 여성가족부 장관상 2명, 보건복지부 장관상 1명 등 장관상 20명을 비롯해 교육감상 9명,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상 8명, 시교육장상 4명, KPC 회장상 42명, 전자신문사 등 유관단체장상 28명, 대학총장상 15명, KPC자격 지역센터장상 38명을 포함해 총 164명이 올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제15회 i-TOP 경진대회에 1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64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i-TOP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모습.

6개 공인민간자격 주관·교육보급 MZ세대·시니어 겨냥 'DMC' 론칭

〈디지털미디어크리에이터〉

KPC한국생산성본부

KPC는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에 설립돼 올해로 창립 64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KPC는 개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격시험을 개발·시행하고, 자격시험 시행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PC는 현재 ITQ, GTQ, GTQi, ERP, SMAT, IEQ 등 총 6개의 공인민간자격을 주관·시행하고 있다. 또 SW코딩자격, 데이터사이언티스트(DSAC), 마케팅빅데이터관리사, CAD실무능력평가(CAT), 3D설계실무능력평가(DAT) 등(이하 등록민간자격)을 론칭하고 관련 교육을 보급하고 있다.

KPC는 올해 MZ세대에서 시니어까지 누구나 PC,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편집의 기본 원리에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 활용 능력까지 평가

할 수 있는 영상 편집 전문 자격시험 디지털미디어크리에이터(DMC)를 론칭했다. DMC 자격은 영상 편집 기술만을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윤리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미디어 리터러시도 평가하는 시험으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편집, 광고, 캐릭터, 글자, 로고,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패션, 건축, 가구 등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 디자인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GTQi(그래픽기술자격일러스트)가 국가공인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KPC는 KPC자격 취득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네이버와 '자격증, 인증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9월부터 네이버에서 KPC 자격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PC 자격증에 대한 취득 여부와 유효 여부를 네이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KPC 자격 취득자들의 자격증 서비스 활성화와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윤대원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김한재 송실대 학생

4년 전 대상 이후 식어가던 열정 되살려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가까이 i-TOP 경진대회에 도전했습니다. 4년 전 대상 수상을 한 이후로 다시 i-TOP 경진대회에 재도전하는 것이 욕심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한재(송실대) 학생은 “대학교에 진학한 후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져 갔다”면서 “그래서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대회 때 그 마음가짐을 다시 가져보고 싶었다”며 출전 배경을 설명했다.

김한재 학생은 “오랜만에 도전하는 i-TOP 경진대회에서 식어가던 열정



을 다시 살릴 기회와 함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i-TOP 경진대회는 다른 과목에 도전해보고 싶다”며 “지난 10년의 대회 동안 항상 ITQ 종목만을 출전했다. 익숙한 과목만 학습하지 않고 새로운 과목에 도전해 스스로의 부족한 역량을 기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다방면의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윤빈 양구중 학생

매일 두 시간씩 연습 노력 보답 받아

“i-TOP 경진대회에 올해도 두 번째로 참가하는데 작년에는 아무 상도 타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렇게 장관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기분이 좋고 제 자신이 많이 뿌듯합니다.”

이윤빈(양구중) 학생은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들이 이번 상으로 보답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윤빈 학생은 대회를 나오기 전까지 평일에 2시간씩 연습을 하고 가끔은 주말에도 모두 다 같이 모여서 두 시



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게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이 대회를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잘 버티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참가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덧붙혔다

김나연 한남대 학생

포토숍 발판 삼아 디자인 역량 강화

“교수님 소개로 i-TOP 경진대회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교수님의 지도 하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김나연(한남대 멀티미디어공학과) 학생은 “항상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는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나연 학생은 “어려움도 많았고, 준비를 위해 새벽까지 컴퓨터를 들여다보



던 날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한 날들 속의 포토숍이라는 것은 단순한 작업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i-TOP 경진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다”면서 “지금보다 더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디테일을 키워서 제 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희진 대동세무고 학생

중간고사 기간에도 포기 않고 준비

제15회 i-TOP 경진대회 기업정보관리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박희진(대동세무고) 학생에게 돌아갔다.

“담임 선생님께서 대회 출전을 권유하셔서 실력을 쌓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이후 기술문제 풀이에 집중했고 선배, 친구, 선생님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쁩니다.”

박희진 학생은 대회 당일 이 학교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 버겁기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대회 준비 등에 임해 장관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컨디션 난조로 본 실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았지만 상을 받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수상을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예문 우림중 학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꿈 향해 전진

“제 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가설을 세우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코딩 능력이 필수입니다.”

곽예문(우림중)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코딩 기본기를 쌓고자 학교 방과 후 코딩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며 “스크래치를 배우고 아두이노와 피지컬 컴퓨팅을 배운 이후 i-TOP 경진대회에 도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등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에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교재에 쓰여 있는 피지컬 컴퓨팅과 알고리즘, 2진법을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면서 “대회 2주 전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컴퓨터 실에 가서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스크래치 문제를 풀었다.

최은성 씨

시간절약 목표로 실전 실력 키워

“시력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작은 휴대폰 화면을 찡그린 눈으로 보고 계신 모습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진대회 1등에게 태블릿PC를 준다는 점에 효과적이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기쁩니다.”

최은성 씨는 제15회 i-TOP 경진대회 정보기술(ITQ)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대회에서 자신이 달성할 목표를 ‘시간 절약’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경진대회 시험 시간을 25분보다 짧은 20분으로 연습 타이머를 맞춰놓고, 대회를 준비했



다. 이 과정에서 답안 정리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연습을 거듭해 실력을 높였다.

그는 “뜻깊은 장관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내년에는 그래픽 기술 분야에 출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IT 합양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힘써주시는 주최 측과 관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예린 덕현고 학생

포토숍·일러스트 자격증 따며 자신감

“장관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정말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참가할 생각입니다.”

김예린(덕현고) 학생은 “상을 타지 않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선생님 말씀에 고민을 많이 한 대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예린 학생은 3학년 때 고교위탁



그래픽 반에서 처음 접한 포토숍과 일러스트를 배우고 GTQ(포토숍) 1급, GTQi(일러스트) 1급 등 자격증을 잇달아 따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경험을 위해 나가는 대회이니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최효인 양구중 학생

실패 경험 속에서 값진 가치 배워

“작년에 처음 대회에 나갔을 때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입상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조금은 분했습니다. 하지만 제15회 전국 i-TOP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게 돼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최효인(양구중) 학생은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이번 대회 참가를 망설였지만 안 좋았던 기억 말고도 좋은 기억도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협동과 보람된 느낌 덕분에 출전을 결심했다. 최효인 학생은 “이번 대회는 누구한



테는 그냥 대회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성공할 줄만 알았지 실패 경험을 했던 것, 비록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지만 모르는

것을 도와주고 협력했던 친구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저 자신의 모습 등 인생에서 겪기 힘든 것들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경준 씨

국제물류학 전공...ERP 노하우 살려

“대학교에서 국제물류학을 전공해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회의 기업정보관리(ERP) 부문에 도전했습니다. 애초 수상보다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도전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감격스럽습니다.”

안경준 씨는 제15회 i-TOP 경진대회 ERP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대회에서 대학교 재학 중 배운 전공지식과 그간 쌓아온 ERP 노하우를 대회에 쏟아부었다.

그는 생애 최초로 도전한 경진대회에



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상을 통해 뭘 해도 잘 될 것 같다는 즐거운 기분이 든다”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면·성실히 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주원 군산상고 학생

학교 활동 적극 참여...열매 이어져

“이 상은 저 개인의 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면서 노력한 군산상고 친구들과, 원서접수 권유부터 시험장까지 함께 준 선생님들이 이끌어주시어 얻어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부듯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주원(군산상고) 학생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전하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한 것이 뜻밖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모든 일에 소극적이었던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적극적으로 관



심을 주신 선생님 덕분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런 좋은 기회도 생길 것 같아 기쁘다”며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장관상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발판이 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